

이재명 호남으로 이낙연 경기로...상대 강세지역 표심잡기

전북 찾은 이재명 "민주세력 본산은 전라도"...정세균 추켜 세워 이낙연, 인천 등 수도권서 비공개 일정 소화 지역민심 구애 행보 '경기도' 설치 공약·단체장 시절 공약 이행률 놓고 날 선 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달 30일부터 3박4일 동안 영·호남과 충청권을 U자형으로 1200km를 도는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기간 이 지사의 본진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찾아 지지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전북을 찾아 "민주 세력의 본산은 전라도다. 전라도가 없다면 민주당은 건재하기 어렵다"며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동학혁명에서 나온 대동(大同) 세상의 주권은 본래 전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향인 전북인) 정세균 전 당 대표께서도 책임감이 뛰어나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 선배님이요 총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고 추켜세웠다. 이 지사는 "과거에는 전북을 포함한 전라도가 국가 식량을 책임지는 곡창지대였지만, 세월이 바뀌어 태양광과 수력, 풍력 등 서남 해안 벨트가 신재생 에너지의 전라기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북이 탄소 산업과 새만금 중심의 신재생 사업을 통해 재도약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1일 인천 등 수도권 등지에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 구애에 나섰다. 이 지사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이 지사의 '본진'인 수도권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인천은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오는 10월2일 경선이 열리는 곳으로, 경선 중반 분위기 형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

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전 대표는 예비경선 이후 총남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국을 한 바퀴 돌았고, 현재 대구·경북만 남은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오는 4일 방승토론회를 마치고 대구·경북지역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주말은 경기와 인천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며 "이 지사의 고향이기도 한 TK에서는 동서회합과 국민통합을 담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낙연 전 대표 진영은 주말에도 설전을 이어갔다. 다만 후보들은 상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다. 우선 경기도에서 북부지역 분리를, '경기도'를 설치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분리하게 되면 예산이 남부에 집중돼 남북간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전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이행률 논란과 관련, "전남지사 공약 76개 중 20개만 이행했다는 것은 이미 5년 전 시민단체의 보도자료 내용"이라며 "그러나 이낙연 캠프는 우리 측 질문을 마타도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 공약 이행률을 95%라고 하는데, 호화 성남시 청사 매각, 성

남·광주·하남 통합, 태극기박물관 유치 등 공약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오영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캠프는 연일 지역주의를 이용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와 자의적인 해석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무리 다급해도 무리수의 시작은 자충수로 귀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토론방에서도 격론이 일어났다. 친문계인 신동훈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에서 '특정 캠프의 핵심 의원'에서 '언론이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되지 왜 의원 단체방에 올리느냐'며 전제로 항의를 하셨다. '그러려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하라'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고 '폭로'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토론회에서도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을 연일 비판해 왔다. 이에 이재명 지사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단체방에 올린 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마구 몰아붙이던 야당의 주장에 가깝다"고 받아쳤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본소득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며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연구원의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 기본소득이 들어있었다. 이견이 없었나 아래서 갖 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송 대표를 직격한 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앞세우면 재집권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본다"며 당의 정책 채택 철회를 촉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아 탄소성유로 만든 차량 부품을 들여보고 있다. /연합뉴스

'친문' 박주민·이재정, 이재명 캠프로...이 "든든하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재선의 박주민·이재정 의원을 나란히 캠프로 '영입'했다.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두 의원은 법사위 등에서 활동하며 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보태 강선 전문 인사로 꼽힌다. 대선 본격전이 막을 올린 가운데 당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계를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든든하다. 두 의원님 모두 당의 개혁적인 정책에 앞장서 주셨고 우리 정치

의 미래를 밝힐 분들"이라며 "개혁적인 4기 민주 정부로의 재창출을 열망하는 국민께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보님이 선뜻 캠프에서의 총괄본부장 역할을 제안하셨고 저도 흔쾌히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말로만 개혁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람,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만들고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재정은 이재명과 함께하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이재명-이낙연 배우자 '내조 경쟁'

광주서 봉사활동·소통행보 조용한 호남 바닥민심 훑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2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배우자들의 '내조 경쟁'이 뜨겁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측간 상호 비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배우자들은 호남에서 조용히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아내 김숙희씨는 지난 6월부터 사실상 호남에 상주를 하면서 광주에서 8주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최근 두 번째 호남 방문을 통해 호남에서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내조의 특징은 김숙희씨의 경우 '조용한 봉사활동'을 통한 내조에, 김혜경씨는 광주 역사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각계 각층을 만나는 '소통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8주째 광주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숙희씨는 일주일에 2~3일씩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로 남광주시장과 대인동의 '천원 식당'에서 일손을 거들며 서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봉사활동도 여러 장소를 돌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매주 꾸준히 하게 진행하고 있어 주변에선 김씨의 '진정성'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에는 청각·언어·지체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하고, 장애인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노숙자 시설 및 양로원, 마을회관을 돌며 무료 배식활동을 하며, 시간을 쪼개 여성계와 문화계,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 캠프 측 관계자는 "김씨는 봉사활동 중 잠시 생기면 호남 곳곳의 재래시장을 찾아가"며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듣고 '바닥 민심'을 이 전 대표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도 뒤늦게 내조 경쟁에 뛰어들어 호남 민심 행보를 늘리고 있다. 김혜경씨는 지난달 14일 남편 대선 캠프 전 경선지사의 장인상 민소의 조문을 한 뒤 공식 행보를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31일 광주 광산구 송정역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후보측 제공>

를 찾는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다시 찾았다. 김씨는 광주의 역사와 '광주 정신'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김씨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았고, 70~80년대 들불야학의 거점이자, 80년 5·18 당시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광천시민아파트를 둘러보는 등 광주의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씨가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 '1000원밥상'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측 제공>

역사에 집중했다. 지난달 29일 두 번째 광주 방문은 5·18 민주화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5·18 택시를 타고 금남로와 전일 빌딩 245, 메이홀을 거쳐 전남대를 방문했다. 이어 전남대 5·18 기념장소를 둘러본 뒤 교수·학생들과 '정년, 찾다-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오월어머니집'에서 오월 어머니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다음날에는 전남 목포에 이어 장

흥 수해현장을 찾았고, 3일째는 광주 송정역 시장을 찾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호남에서 '반문(문재인)' 정세가 강할 때 김정숙 여사가 광주에서 6개월여를 머물며 민심을 돌리는 역할을 한 결과가 있었던 만큼 두 대선 후보자의 내조 경쟁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현대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